

화순적벽, 사진으로 다시 만난다... '적벽 관광 사진 공모전' 열려

“천하 제일경, 화순 적벽의 순간을 사진에 담다”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구복규)은 제38회 화순적벽문화축제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2025 적벽 관광 사진 공모전 「너와 나의 적벽을 보여줘」'를 개최하고, 전국의 사진 애호가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출품작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화순의 대표 관광지인 적벽(赤壁)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 경험을 주제로 사진 한 장에 담긴 감성적 이야기와 시각적 완성도를 함께 심사하여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참가자는 보산적벽, 장항적벽, 물염적벽, 창랑적벽, 서암적벽 등 화순 적벽 일원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과 작품 설명을 제출해야 하며, 응모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공모 기간은 7월 23일(수)부터 8월 24일(일)까지이며, 참가 희망자는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또는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진 이미지(JPEG 형식, 해상도 2,000×3,000픽셀 이상)와 함께 이메일(justicestar@hfc.or.kr)로 제출하면 된다. 1인당 최대 3점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 후 우선 확인(☎ 061-373-5482)은 필수다.

출품작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활용성, 대중성, 표현성, 독창성 등 총 6개 항목에 따라 내·외부 전문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2점의 수상작을 선정

한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0일(토) 화순적벽문화축제 행사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대상(화순군수상) 수상작에 화순사랑상품권 15만 원을 비롯해 총 12명에게 시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재단 공식 SNS, 홈페이지, 향후 재단 행사 및 전시 콘텐츠 등 공공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구종천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전은 화순 적벽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확산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자연과 예술이 만나는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화순/김중환 기자



우리 삶을 노래한 그녀, 조공례를 부르다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8월 2일 진도 삼례 시리즈 1 공연 개최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8월 2일(토) 오후 8시, 진도 삼례 시리즈 1 〈조공례를 부르다〉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보배섬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이 “진도 삼례”라 일컬어지는 조공례, 채정례, 김대례의 탄생 주기를 기념하고 추억하기 위해 기획한 공연이다.

그중 우리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남도 소리의 명인 조공례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그의 제자인 김용우와 딸 박동매(국가무형유산 남도들노래 예능보유자), 그리고 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이 함께 무대를 꾸민다.

공연의 1부 ‘젊은 소리꾼 김용우’는 조공례 명인의 살아생전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영상으로 시작해 소리꾼 김용우와 그의 밴드가 함께 무대를 선보인다.

강강술래부터 시작해 시선뱃노래, 대강거리, 남도들노래 중 절로소리까지 준비하였다.

이어지는 2부 무대는 공연의 메인 제목인 ‘조공례를 부르다’로 박동매와 남도들노래보존회, 국립남도국악원 성악단 허정승, 김원기, 이근호, 그리고 김용우가 함께하여 남도들노래, 오곡타령, 진도아리랑으로 무대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조공례 명인은 삶이 소리고, 소리가 삶이었던 명인으로, 우리 소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후학 양성에 힘썼다.

그에게 소리를 배운 김용우는 국가무형유산 가사 이수자이자, KBS 국악대상 대상(2016)과 제6회 서울문화투데이 문화



대상(2015), 올해의 예술상(2006) 등을 수상한 국악계 황태자이다.

또한, 김용우는 정규앨범 9집과 싱글/미니/EP/베스트앨범 포함 총 16장 발표하여 자기만의 음악 세계를 펼치고 있는 예술인이다.

함께 무대를 꾸밀 박동매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국가무형유산 남도들노래 예능보유자이며, 한미 수교 100주년 기념공연(위싱턴)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남도들노래를 널리 알리고 있으며, 진도교육지원청, 중앙대학교 등에서 남도들노래를 강의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공연은 무료이며, 공연 전후 진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장동문화센터(고군면 오일시)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주 동구(정장 임택)는 오는 8월 4일부터 23일까지 미로센터 1층 미로 1에서 ‘길어 올려진 이미지’ 전(展)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동구 미로센터와 거버넌스 협약단체인 대안 예술공간 SPACE DDF의 협력으로 마련됐다. ‘땅에서/물에서/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진 이미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번 전시에는 김설아·남석우·이예주·윤향로·장승근·하승완·함성주 등 7명의 작가가 참여하며, 평면·조각·설치 등 총 30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기획 과정을 거쳐 각기 다른 장르와 매체를 활용,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들이 만들어 낸 이미지들은 단순

젊은 작가 7인의 ‘길어 올려진 이미지’

동구 미로센터 기획전시, 8월 4~23일 30점 선봬

히 시각적 형상으로 그치지 않고, 시대와 역사, 기억의 복합적인 층위에 기인했으며 해당 맥락에서 의미를 확장해 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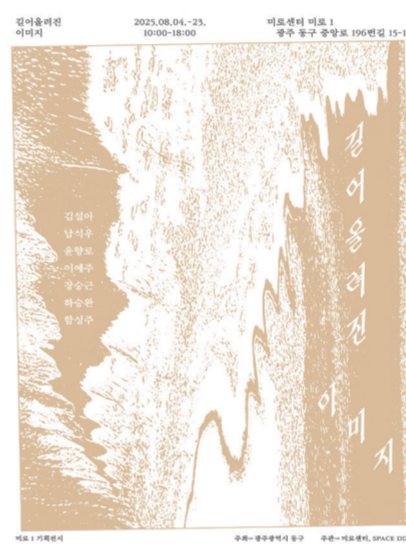
작가들은 과거와 현재, 그 사이의 공간을 넘나드는 작업을 통해 ‘미네모시네’ 아틀라스를 재구성해 관객과 만난다. 특히 광주를 비롯한 국내외의 다양한 예술 장르와 지역적 역사, 현대사의 사건들이 켜켜이 쌓여 온 가상적 토지로서 전시 공간을 형성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최하얀 SPACE DDF 책임기획자는 “이번 전시는 최근 몇 년간 지역의 젊은 작가들과 협업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주제에 기반했다”면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면서 이미지와 기억의 관계, 미션형적 이미지의 중첩 등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동구정장은 “이번 전시는 우리 지역 청년 작가들의 새로운 작업을 주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작가들이 동구와 예술의 거리를 점점 삼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 관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8월 10일에 열리는 오프닝 행사에서는 참여 작가와 기획자가 참석해 전시의 핵심 주제와 작가들의 작업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전화(☎062-608-2131~6)로 문의하면 된다.

/김명수 기자

서구, 도서관에서 즐기는 여름방학

도서관별 독서교실·북강스·방학특강 등 프로그램 다채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8월 여름방학을 맞아 구립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과 상록도서관에서 운영되며 무더위와 장마철에도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실내 체험 위주로 구성됐다.

상록도서관은 8월 4일부터 이틀간 ‘AI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주제로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하며 9일에는 초등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독서와 문화공연이 결합된 여름맞이 야간행사 ‘상록별밤 북강스’가 진행된다. 또 23일과 30일에는 아빠와 자녀

가 함께 참여하는 ‘아빠랑 나랑! 처음 손바느질’ 방학특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은 8월 ‘한여름밤, 도서관 보물찾기’를 주제로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해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채봉길 도서관과장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책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과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전혜경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고흥이 낳은 천재 동요 작곡가이자 항일 운동가인 목일신 선생의 뛰어난 업적을 기리고자 오는 9월 20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제12회 목일신 전국 동요제 및 동시대회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자전거’, ‘누가 누가 잡자나’ 등 주옥같은 동요를 남긴 목일신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고, 전국 어린이들에게 동요와 동시의 아름다움

고흥군, 제12회 목일신 전국 동요제 및 동시대회 개최

9월 20일 고흥문화회관서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과 순수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예선은 8월 30일, 본선은 9월 20일 오후 2시에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열린다. 본선은 KBC 광주방송을 통해 중계될 예정이다.

참가 대상은 전국 초등학생이며, 참가 신청 기간은 동요제는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동시대회는 7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다. 참가 신청은 이메일(mokilsindongyo@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나온 농어촌

농지

지가 있다면

농지

금이 있습니다

꼭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